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과 사회적 지지 및 소외감이 미혼모의 자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Emotional Connection with Parents, Social Support, and Isolation on Unmarried Mothers' Child-Rearing Efficacy

문정숙(Jeogn-Sook Moon)¹, 김영희(Yeong-Hee Kim)^{2*}

¹Cheongju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²Departmen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emotional connection with parents, social support, and isolation on unmarried mothers' child-rearing efficac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94 unmarried mothers.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age, Cronbach's α , and Pearson's correlation using the SPSS 12.0 program. The test of the theoretical model was performed with an analysis of the correlational matrix in the AMOS 7.0 package for path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adult unmarried mothers was higher than that of teen mothers. Most unmarried mothers had a low monthly income, were unemployed, and received economic assistance from the government or social welfare institutions as a major source of their income. Their decision to have a child were for the following reason: the desire to have a child, fear of having an abortion, belief that abortion is a crime, and uncertainty about which decision to make, etc. Second, the women's emotional connection with their parents had a direct effect on social support. Social support had a direct effect on isolation; however, it did not have a direct effect on parenting efficacy. Third, the women's emotional connection with their parents had a direct effect on isolation. Isolation had a direct effect on parenting efficacy. Fourth, social support mediated by the women's emotional connection with their parents had an indirect effect on isolation and child-rearing efficacy. Isolation mediated the women's emotional connection with their parents and had an indirect effect on child-rearing efficacy.

▲주제어(Key Words) : 미혼모(unmarried mother),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emotional connection with parents),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소외감(isolation), 자녀 양육효능감(child-rearing efficacy)

I. 서론

현대 산업사회의 발달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는 가족생활에 구조적, 기능적 변화를 가져와 이혼이나 별거 및 미혼모를 증가시키고 있다. 더구나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는 성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

• This article is a part of Jeong Sook Moon's doctoral dissertation submitted in 2013.

* Corresponding Author : Yeong-Hee Kim, Departmen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52 Naesudong-ro, Seowon-gu, Cheongju city, Chungbuk, Tel: +82-43-261-3147, E-mail: enjoy@chungbuk.ac.kr

에도 변화를 가져왔고, 성문화의 확산과 성산업, 대중매체 및 통신기기의 확대에 의한 성적표현의 과다한 노출로 성을 허용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성행위를 증가시키게 되었다. 허용적인 성행위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미혼모의 발생을 증가시켜 미혼모 개인의 문제는 물론이고 사회나 국가가 개입하는 문제로 확대되었다.

보건복지부의 2008년 가족통계를 분석한 K. Song(2012)은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수가 2000년 1,273명, 2002년 1,673명, 2005년 2,123명이며, 미혼모 가구 수는 2000년에 11만 7,764가구, 2005년 13만 3,234가구로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M. Lee(2010)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대 미혼모 비율이 1984년 24.9%, 2005년 41.8%, 2006년 39.5%, 2009년 30.8%이며, 25세 이상 미혼모 비율 또한 1984년 15.3%에서 2009년 37.5%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합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이었던 과거에는 대다수의 미혼모가 자녀를 입양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미혼모가 급격히 증가하여 양육 미혼모의 비율이 1984년 5.8%, 1998년 7.2%, 2005년 31.7%, 2009년 66.4%로 증가하고 있다(M. Lee, 2012). K. Song(2012)이 미혼모 542명을 대상으로 자녀를 출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임신중절시기를 놓쳐서' 21.4%, '생명에 대한 애착' 18.1%, '혼자서라도 아기를 키워야 될 것 같아서' 16.9%로 나타났고, 임신중절시기를 놓쳐서 출산을 한 미혼모들은 출산 후 입양을 선택한 비율이 높은 반면, 생명에 대한 애착이나 혼자서라도 아기를 키워야 할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미혼모들은 양육을 선택한 비율이 높다고 밝혀내었다.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2010)의 조사에서도 미혼모 265명 중 66.3%가 자녀양육을 결정하였고, 자녀양육결정에 미혼모 자신의 의사가 결정적이라고 하였다.

양육미혼모가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미혼모가 증가하면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H. Kim, B. Sun, E. Kim, & J. Jung, 2009; M. Lee, 2010). 또한 저소득층 자녀보육 지원확대 및 미혼모 양육지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진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2011년 입양특례법 개정도 증가 이유로 볼 수 있다(M. Lee, 2012).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미혼모의 자녀양육과 관련된 요인들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양육에 도움이 되는 개입 방안을 탐색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양육미혼모들은 부모역할 수행에 중요한 요소인 배우자 지지가 없고, 사회에서의 인식과 편견으로 인해 사회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으며(J. Connolly, M. Heifetz, & Y. Bohr, 2012), 준비되지 않은 임신으로 부모됨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자녀를 양육하면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기가 쉽다(Y. Moon & H. Min, 2012). 또한 미혼모는 어머니에게 지속적으로 과도한 관심을 요구하는 영유아기 자녀에게 배우자나 가족의 지원 없이 혼자 자녀를 양육하므로 스스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녀에게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에 처하더라도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양육스트레스와 불안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게 된다(A. Bandura, 1997). 자녀양육에 관한 연구들도 부모 자신이 자녀양육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가 양육행동이나 아동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H. Choe, 2002; A. P. Jackson & R. Scheines, 2005; N. Junntila, M. Vauras, & E. Laakkonen, 2007; S. Kendall & L. Bloomfield, 2005; H. Kim, 2003). 이에 따라 최근에는 단순히 부모의 양육행동을 연구하기 보다는 부모가 자녀양육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모의 양육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L. A. Niditch & R. E. Varela, 2012; J. T. Salonen et al., 2009; M. Song, Y. Song, & Y. Kim, 2007; K. A. Whittaker & S. Cowley, 2012). P. K. Coleman and K. H. Karraker(1998)는 부모가 자녀양육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지적 요소를 양육효능감이라고 정의하였다.

양육효능감은 A. Bandura(1997)의 자아효능감 이론을 양육에 응용한 개념으로써 자녀를 양육시키는데 필요한 행동과정들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부모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 양육효능감은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 대한 신념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양육을 동기화하며, 양육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J. Moon, 2013). 이에 따라 선행연구는 양육효능감이 부모의 자녀양육 동기와 양육행동이나 참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T. L. Jones & R. J. Prinz, 2005; D. M. Teti & D. M. Gelfand, 1991). 높은 양육효능감은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에게 심리적 안녕감은 물론 역할만족감을 높이고(P. K. Coleman & K. H. Karraker, 1998; E. E. Drake, S. S. Humenick, L. Amankwaa, J. Younger, & G. Roux, 2007; S. M. Elek, D. B. Hudson, & C. Bouffard, 2003; F. W. Ngai, S. W. Chan, & E. Holroyd, 2007),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이끌게 만들며, 양육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대처할 수 있는 대처능력의 기제가 될 수 있다(A. Bandura, 1997; T. L. Jones & R. J. Prinz, 2005; S. M.

Reece, & G. Harkless, 1998). 특히 미혼모의 경우 자녀를 양육할 때 양육행동이나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어려움보다는 생의 과정동안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겠다는 동기와 자녀양육과 관련된 문제나 어려움을 스스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양육효능감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미혼모의 자녀 양육효능감에 관련된 요인들을 밝히는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관련된 주요 요인은 배우자 지지로 알려져 있다(M. Cochran & S. Niego, 1995; F. Montigny & C. Lacharité, 2005; M. R. Sanders & M. L. Woolley, 2005). 배우자 지지는 자녀 양육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양육스트레스나 불안 및 우울과 같은 정서를 매개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J. Bryanton, A. Gagnon, M. Hatem, & C. Johnson, 2008; S. Suzuki, 2010). 이러한 연구들은 배우자 지지가 부모역할에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영향을 모두 미치는데 간접적인 영향력은 부모의 심리적인 특성을 통한 영향력이라고 한 J. Belsky(1984)의 배우자 지지 모델을 잘 뒷받침해준다. 또한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큰 영향력을 갖는 배우자 지지와 심리적 특성은 자신의 부모와의 애착이나 정서적 유대감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 M. Reece & G. Harkless, 1998; S. Suzuki, 2010). 부모와의 정서적 의존도와 유대감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형성해 주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도움이 필요할 때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특징을 지니기 때문이다(P. Leahy-Warren, G. McCarthy, & P. Corcoran, 2011; R. L. Simons, J. Beaman, R. D. Conger, & W. Chao, 1993). 특히 배우자로부터 양육에 대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미혼모는 주변 사람들과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양육효능감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자신의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의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다(M. Cochran & S. Niego, 1995; A. P. Jackson, G. J. Brooks, C. Huang, & M. Glassman, 2000).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은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애정을 받고자 하는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부모와 정서적으로 단절될 경우 아직 부모와의 애착에 미해결된 정서가 남아 있어 자신의 심리적, 행동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신의 자녀와도 정서적인 연결을 하기 어렵다(L. Claes, S. Vertommen, D. Smits, & P. Bijttebier, 2009). 반면 부모와 정서적 교류를 지속하면서 부모와 연결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자녀와의 관계에도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친밀감을 갖고(J. W. Berry, Y. H. Poortinga, M. H. Segall, & P. R. Dasen, 2002), 자녀양육효능감도 높아

진다(P. Seigny & Louzenhiser, 2009). 이와 같이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미혼모의 자녀 양육효능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은 부모-자녀관계의 안정적 기반을 토대로 가족이나 주변사람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를 더 긍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한다(D. Woody & D. J. Woody, 2007).

사회적 지지는 한 개인이 대인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자원이다(S. Cohen & H. M. Hoberman, 1983). 기능적인 면에서 볼 때 객관적 지지보다 개인에게 지각된 주관적 지지가 더 중요하다는 K. Heller와 R. W. Swindle(1983)은 개인에게 객관적인 지지자원이 있다는 것과 지지를 받았다고 지각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즉, 외부에서 지지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지로 지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정한 지지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선행연구는 주관적으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배우자 지지 대신 미혼모의 심리적 안녕감과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어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A. P. Jackson, K. S. Preston, & C. A. Thomas, 2013; M. Radey & K. Brewster, 2013).

미혼모는 사회적 인식부족과 편견으로 인해 사회적인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데 사회적 지지가 소외감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 V. Pederson, A. I. Christensen, U. Hesse, & T. Curtis, 2008; A. Rokach, 2005; M. Stewart, L. Reutter, N. Letourneau, & E. Makwarimba, 2009). 사회적인 고립감과 소외감 같은 부정적인 정서는 기혼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나 불안, 우울과 같이 자녀 양육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혼 어머니들에게서 밝혀진 바와 같이 미혼모에게 중요한 사회적 지지나 소외감은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L. M. Tsou, 2010).

이와 같이 선행연구는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과 사회적 지지 및 소외감이 자녀양육효능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미혼모의 자녀양육에 관한 연구는 주로 현황이나 특성을 밝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질적인 자녀양육 개입에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혼 어머니들의 이론적 모델을 적용하여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 사회적 지지 및 소외감이 미혼모의 자녀 양육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미혼모의 자녀양육에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보고 양육미혼모를 위한 교육이나 상담은 물론 정책방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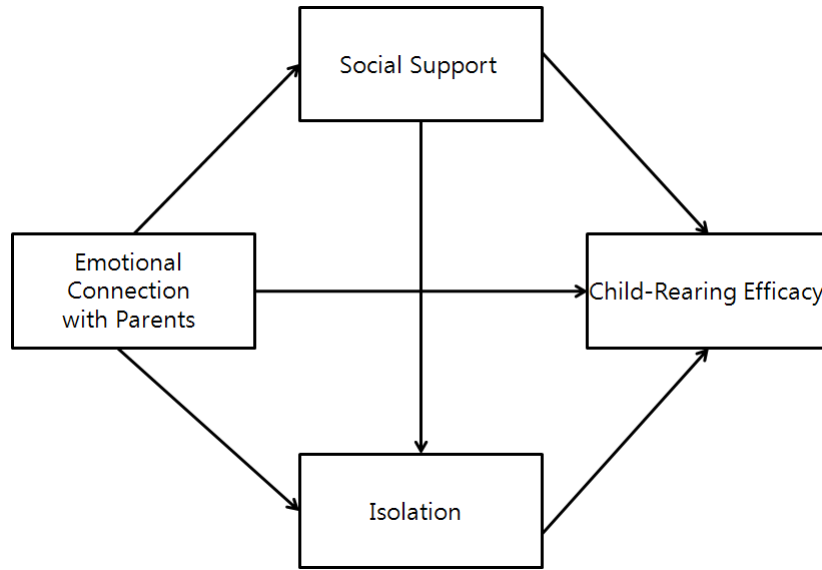


Figure 1. The Effects of Emotional Connection with Parents, Social Support, and Isolation on Unmarried Mothers' Child-Rearing Efficacy: A Research Model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미혼모의 일반적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과 사회적 지지 및 소외감이 미혼모의 자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과 사회적 지지 및 소외감이 미혼모의 자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Figure 1>에 가설적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분석

본 연구는 법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미혼모 19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하여 자녀가 둘 이상인 미혼모는 대부분 법적인 혼인은 아니지만 자녀의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한 명인 미혼모만을 대상으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서울시,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및 경상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설거주 미혼모와 재가 미혼모를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질문지 조사방법을 사용하여 유의표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을 이용하여 질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위해 요인분석과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내적합치도를 검증하였고, 각 하위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제안된 이론적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서 AMOS 7.0을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2. 측정도구

1)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측정하기 위해 C. W. Metzler, A. Biglan, D. V. Ary and F. Li(1998)가 청소년과 부모와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한 Parenting Constructs 척도를 번안·수정하여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나는 우리 부모님과 이야기가 잘 통한다.”, “우리 부모님은 내게 사랑과 애정을 보여 주신다.”, “우리 부모님은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꺼이 도와주신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값은 .92이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J. Park(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미혼모에게 필요한 물질적, 정서적, 정보적, 평가적 지지를 총합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총 2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

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값은 .96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미혼모가 부모 이외의 형제, 친구, 친척, 이웃, 지역사회 사람들에게서 물질적, 정서적, 정보적, 평가적 지지를 통해 사회적 지지를 높게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소외감

소외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D. Russell, L. A. Peplau, & C. E. Cutrona(1980)가 개발한 UCLA Loneliness Scale (RULS)를 S. An(2005)과 J. Kim(2007) 등이 번안·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값은 .88이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소외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4) 자녀 양육효능감

자녀 양육효능감은 C. R. Barnes and E. N. Adamson-Macedo(2007)가 개발한 Perceived Maternal Parenting Self-Efficacy(PMP S-E)를 번안·수정하여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후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돌봄능력, 달랠능력, 신호지각능력, 애정적 상호작용능력의 4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총 24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요인분석을 통하여 중복 적재되는 2문항을 제외하고 돌봄능력 4문항, 달랠능력 7문항, 신호지각능력 6문항, 애정적 상호작용 능력 5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돌봄능력이란 아이를 돌보는 능력을 뜻하고, 달랠능력이란 아이가 스트레스 상황일 때 달랠 수 있는 능력을, 신호지각능력은 아이가 엄마한테 보내는 신호에 대한 지각능력을, 애정적 상호작용능력은 아이와 애정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값은 돌봄능력 .91, 달랠능력 .92, 신호지각능력 .89, 애정적 상호작용능력 .87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돌봄능력, 달랠능력, 신호지각능력, 애정적 상호작용능력에서의 자녀양육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III. 연구결과

1. 미혼모의 일반적 특성

미혼모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미혼모의 연령은 16-19세 13.4%, 20-24세 32.5%, 25세

이상 54.1%이었고, 평균 연령은 24.66세(SD=3.92)이었다. 학력은 중졸이하 7.8%, 고등학교 중퇴 15.6%, 고등학교 재학 3.6%, 고졸 37.0%, 대학 중퇴 12.0%, 대졸이상 24.0%이었고, 직업을 가진 미혼모는 38.1%, 직업이 없는 경우는 61.9%이었다. 미혼모의 현재 월수입은 50만원 미만 44.6%, 50만원~100만원 미만 31.1%, 100만원 이상 24.3%이었고, 미혼모가 자녀와만 동거하는 경우는 44.3%, 자신의 자녀와 부모, 형제, 조부모 등 다른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는 55.7%이었다.

미혼모가 자녀를 출산한 연령은 20세 미만(10대) 18.5%, 20세~24세 42.3%, 25세 이상 39.2%이었고, 출산 시의 평균연령은 23.29세(SD=3.69)이었다. 미혼모 자녀의 연령은 12개월 이하 54.1%, 13개월~24개월 30.4%, 25개월~36개월 11.9%, 37개월~47개월 3.6%이었고, 자녀의 평균 연령은 14.31개월(SD=10.54)이었다. 자녀의 법적상태를 살펴보면, 친권은 자녀의 부, 양육권은 미혼모인 경우 2.6%, 친권과 양육권 모두 미혼모인 경우 84.9%,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경우가 12.5%로 나타났다. 미혼모가 자녀를 출산한 이유는 자신이 원해서(70.1%)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낙태가 무서워서 37.6%, 낙태가 범죄라고 생각해서 28.4%, 어떻게 할지 몰라서 20.6%, 낙태시기를 놓쳐서 16.0%, 아이 아빠가 원해서 9.2%, 낙태비용이 없어서 7.7%, 주변사람들의 권유로 5.7% 순으로 나타났다. 파트너와 성관계를 갖게 된 시기는 만난 지 1개월~6개월이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시기는 임신 3개월이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임신 사실을 안 후의 감정은 주로 두려움, 걱정, 당황, 슬픔 등으로 나타났다. 임신 사실을 안 후 파트너의 반응은 낙태하기를 원했다가 68.8%로 가장 높았고, 출산 후 파트너와 연락하지 않는 경우가 76.9%로 높게 나타났다.

임신 후 시설에서 지낸 경우가 59.3%로 나타났고, 미혼모의 주 수입원은 정부 또는 기관지원이 60.3%로 나타났다. 미혼모의 자녀양육도움 지원은 시설이나 지원센터 등 기관지원이 54.1%로 가장 높았고, 부모지원 38.7%, 정부지원 20.6% 순이었다. 미혼모가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지원은 임신 출산 진료비지원이 88.1%로 가장 높았고, 시설입소와 자녀 양육비지원 71.1%, 생계비 또는 생활보조비지원 56.7%, 건강보험료지원 46.9%, 통신요금지원 42.3%, 전기 또는 가스요금지원 41.2%,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지원(상담포함) 35.6%, 교육비 지원 12.4%, 주거지원 또는 전세자금 지원 3.6% 순으로 나타났다. 미혼모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주거지원(62.4%)이었고, 생활비지원(54.1%), 취업지원(26.3%), 아이양육지원(24.7%), 심리상담지원(11.9%), 학교복귀지원(5.7%)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Unmarried Mothers

(N=194)

Variables	Categories	Frequency (%)	Variables	Categories	Frequency (%)	
Age	16-19 years	26(13.4)	Level of Education	Under middle school	15(7.8)	
	20-24 years	63(32.5)		Drop out of high school	30(15.6)	
	25 years and over	105(54.1)		High school students	7(3.6)	
	M(SD)	24.66(3.92)		Completion of high school	71(37.0)	
	Total	194(100.0)		Drop out of college	23(12.0)	
			Completion of college	46(24.0)	Total	192(100.0)
Job	Yes	74(38.1)	Monthly Income	Less than 500,000 won	86(44.6)	
	No	120(61.9)		510,000-1,000,000 won	60(31.1)	
	Total	194(100.0)		More than 1,000,000 won	46(24.3)	
			Total	192(100.0)		
Coresidence	Child only	86(44.3)	Mother's Age at Child Birth	Less than 20 year old (teenager)	36(18.5)	
	Child, parents and sibling	108(55.7)		20-24 year old	82(42.3)	
	Total	194(100.0)		Over 25 year old	76(39.2)	
		M(SD)		23.29(3.69)		
			Total	194(100.0)		
Child's Age	Under 12 months	105(54.1)	Legal Status of Child	Parental rights in child's father and child custody in child's mother	5(2.6)	
	13-24 months	59(30.4)		Parental rights and child custody in child's mother only	163(84.9)	
	25-36 months	23(11.9)		Unsettled	24(12.5)	
	37-47 months	7(3.6)		Total	192(100.0)	
	M(SD)	14.31(10.54)				
	Total	194(100.0)				
Reasons of Reproductive Decision	Wanting to have a child	136(70.1)	Period of Having Sex with Child's Father	Within 10 days	17(8.8)	
	Scaring to procure an abortion	73(37.6)		Within one month	37(19.1)	
	Thinking abortion is a crime	55(28.4)		1-6 months	80(41.2)	
	Don't know what to do	40(20.6)		After 6 months	60(30.9)	
	Missing the chance of abortion	31(16.0)		Total	194(100.0)	
	Child's father wanted to have a child	18(9.2)				
	No money to procure an abortion	15(7.7)				
Others advised to have a child	11(5.7)					
Major Feeling about Pregnancy*	Fear	149(76.8)	Feeling of Child's Father about Pregnancy*	Wanted abortion	132(68.8)	
	worry	141(72.7)		Worry	47(24.5)	
	Embarrassment	88(45.4)		Liking	25(13.0)	
	Sorrow	52(26.8)		Anger	10(5.2)	
	Joy	29(14.9)				
Angry	15(7.7)					
Contact with Child's Father after Child-Birth	Contact with child's father	43(23.1)	Residence after Pregnancy	Living with parents	44(22.7)	
	No Contact	143(76.9)		Living with others	35(18.0)	
	Total	186(100.0)		Living in facilities	115(59.3)	
			Total	194(100.0)		
The Main Source of Income	Government(agency) support	117(60.3)	Source of Child-rearing Support*	Agency support	105(54.1)	
	Work	59(30.4)		Parents support	75(38.7)	
	Parents or Family support	14(7.2)		Government support	40(20.6)	
	Support from child's father	4(2.1)		Support from child's father	8(4.1)	
	Total	194(100.0)				
Received Subsidy*	Pregnancy and childbirth care medical expense	171(88.1)	Needed Subsidy*	Housing support	121(62.4)	
	Facility entry expense	138(71.1)		Financial support	105(54.1)	
	Child-rearing expenses	138(71.1)		Employment support	51(26.3)	
	Living expenses	110(56.7)		Child-rearing support	48(24.7)	
	Expenses of Healthy	91(46.9)		Counseling support	23(11.9)	
	Communication fee	82(42.3)		School reentry support	11(5.7)	
	Utility bill fee	80(41.2)				
	Family Support Center	69(35.6)				
	Education fee	24(12.4)				
	Housing fee	7(3.6)				

* multiple responses

2. 미혼모의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과 사회적 지지 및 소외감이 미혼모의 자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 사회적 지지, 소외감, 자녀 양육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는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각 변인들의 유의한 상관계수는 .10에서 .75로 예측된 방향으로 나타났고, 각 변인들의 분산팽창계수인 VIF는 1.15에서 2.38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1>의 연구모형을 기초로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

감과 사회적 지지 및 소외감이 미혼모의 자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모델의 적합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chi^2=1.02(df=1)$, $GFI=.99$, $TLI=.99$, $CFI=.99$ 로 χ^2 값의 유의확률이 $p>.05$ 이상이고, $RMSEA=.02$ 로 .05 이하이므로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과 사회적 지지 및 소외감이 미혼모의 자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모델을 분석한 결과는 <Figure 2>에 나타난 바와 같고, 모델의 경로계수는 <Table 4>, 모델의 직접·간접·총 효과

Table 2. Correlations, Mean, Standard Deviation of Variab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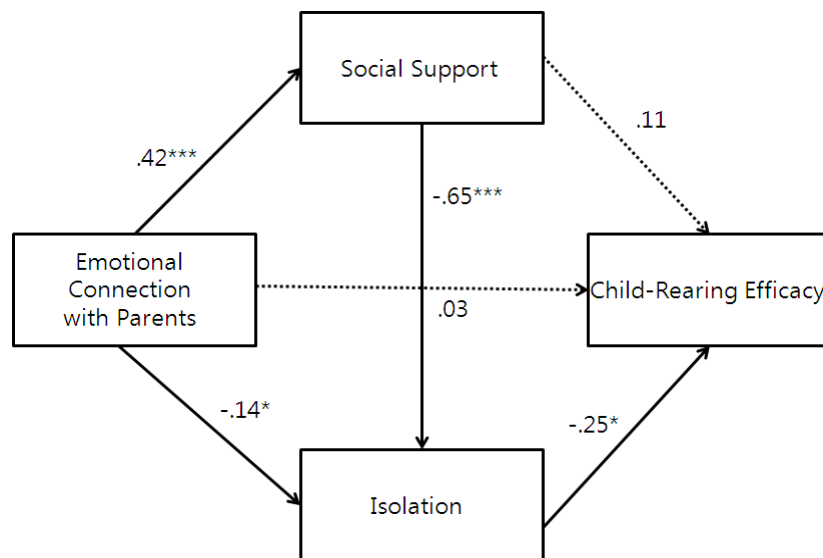
(N=194)

Variable	1	2	3	4
1. Emotional connection with parents				
2. Social support	.42**			
3. Isolation	-.40**	-.75**		
4. Child-rearing efficacy	.10	.31**	-.36**	
M	2.52	2.63	2.22	3.09
(SD)	(.64)	(.49)	(.58)	(.52)

** $p < .01$

Table 3. Model Fit Index for Child-Rearing Efficacy

	$\chi^2(df)/p$	GFI	TLI	CFI	RMSEA
Child-Rearing Efficacy	1.02(1)/.31	.99	.99	.99	.02



* $p < .05$, *** $p < .001$

Figure 2. The Effects of Emotional Connection with Parents, Social Support, and Isolation on Unmarried Mothers' Child-Rearing Efficacy

Table 4. Model Path Coefficients for the Child-Rearing Efficacy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S.E.	C.R.	P
Social Support ←	Emotional	.33	.42	.06	5.43	.000
Isolation ←	Connection with Parents	-.15	-.14	.07	-2.22	.027
Isolation ←	Social Support	-.83	-.65	.08	-9.95	.000
Child-Rearing Efficacy ←		.12	.16	.11	1.12	.261
Child-Rearing Efficacy ←	Isolation	-.19	-.25	.08	-2.24	.025

Table 5.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of Emotional Connection with Parents, Social Support, and Isolation on Unmarried Mothers' Child-Rearing Efficacy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Significance)	Total Effects
Social Support ←	.42***		.42
Isolation ← Emotional Connection with Parents	-.14*	-.27** (-.37 ~ -.22)	-.41
Child-Rearing Efficacy ←		.16** (.09 ~ .21)	.16
Isolation ←	-.65***		-.65
Child-Rearing Efficacy ← Social Support		.16* (.07 ~ .33)	.16
Child-Rearing Efficacy ← Isolation	-.25*		-.25

*p < .05, **p < .01, ***p < .001

과는 <Table 5>에 나타난 바와 같다. 변인들 간의 간접효과와 범위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랩(Boots-trapping methods)을 실시하였다.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은 사회적 지지($\beta=.42, p<.001$)와 소외감($\beta=-.14, p<.05$)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혼모의 자녀 양육효능감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높을수록 미혼모의 사회적 지지는 높아지는 반면 소외감은 낮아졌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소외감($\beta=-.65, p<.001$)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소외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외감은 자녀 양육효능감($\beta=-.25, p<.05$)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소외감이 낮을수록 미혼모의 자녀 양육효능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은 사회적 지지를 통해 소외감에 -.27의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소외감에 미치는 영향 사이에 사회적 지지가 매개효과를

보여 주었다. 즉,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아지고, 높아진 사회적 지지가 미혼모의 소외감을 간접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소외감을 통하여 자녀 양육효능감에 .16의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소외감이 낮아지고, 낮아진 소외감이 자녀 양육효능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도 소외감을 통하여 자녀 양육효능감에 .16의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높을수록 소외감은 낮아지고, 낮아진 소외감이 자녀 양육효능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과 사회적 지지가 자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소외감이 매개효과를 갖는 것을 보여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미혼모의 증가는 물론 성인 미혼모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을 시설 거주 미혼모 뿐 아니라 재가 미혼모를 포함하였기 때문에 성인 미혼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10대 미혼모의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미혼모 발생의 원인이 결혼가정이나 해체 가정 등 가정환경에 있다고 본 이전까지의 관점에서 벗어나 미혼모가 되는 원인을 가정환경과 더불어 사회적, 문화적, 가족적 요인 등을 복합적으로 보아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직업을 가진 미혼모가 직업을 갖지 않은 미혼모보다 높은 이유는 미혼모의 95%가 임신 이후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난 연구보고(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09)와 맥을 같이한다. 미혼모의 경제활동의 축소는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자녀 양육효능감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교육 및 취업 지원정책과 자녀의 부가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혼모 자녀의 법적상태는 대부분 친권과 양육권 모두를 미혼모가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의 27.2%가 법률지원을 받아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고한 M. Lee(2012)의 보고서와 같이 자녀에 대한 법적 책임마저도 대부분 미혼모가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미혼모가 임신과 출산과정을 거치면서 아이 아버지와 연락이 단절되어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친권과 양육권 모두 한쪽 부모가 갖는 것이 오히려 자녀양육에 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어 나타난 것으로도 해석된다.

미혼모가 자녀를 출산한 이유는 '자신이 원해서'라고 답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신이 원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자녀를 양육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J. Ahn & J. Kim, 2004). 또한 미혼모가 생명에 대한 애착이나 혼자서라도 아기를 키워야 할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경우 양육을 선택한 비율이 높다고 밝힌 K. Song (2012)의 결과를 뒷받침 해준다. 이러한 결과는 미혼모의 발생 원인이나 임신에서 출산에 이르는 과정에 초점을 두기보다 미혼모의 자녀양육에 초점을 둔 연구나 정책적 개입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임신 후 미혼모는 두려움과 걱정을 가장 많이 경험한다고 하였다. 이는 미혼모가 임신에서부터 부모됨을 긍정적으로 수용받지 못하고(J. Connolly, et al, 2012), 출산 후 여성의 역할에서 어머니 역할로의 전환은 미혼모들에게 부모됨에 대한 두려

움과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 혼란이나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일으키기 쉬워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P. Leahy-Warren, 2011)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미혼모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미혼모들에게 임신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부모됨과 부모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미혼모들이 출산 후 안정적인 부모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미혼모와 자녀의 부와의 성관계 시기가 빠른 편이었으며, 자녀의 부와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간의 갈등과 부조화로 인해 가족기능과 부모자녀관계의 약화, 가족구성원간의 의사소통 단절(B. C. Miller, J. K. McCoy, T. D. Olson, & C. M. Wallace, 1986)이 의미있는 관계가 아닌 사람과 연결감을 가지는 방편으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임신에 대한 준비와 책임이 수반되지 않은 채 임신을 하게 된 여성은 자녀의 부가 낙태를 권유하거나 연락을 끊으면서 미혼모가 되는 경우가 많고, 자녀의 부와 자녀 양육에 대한 법적 소송을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M. Lee, 2012) 것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 해준다. 이와 같이 미혼모는 준비되지 않은 임신으로 많은 정신적 혼란과 심리적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자녀의 부와의 단절 등의 힘든 과정을 겪어 가며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가나 사회에서는 양육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원가족과의 관계 향상을 위한 상담지원과 자녀의 부모부터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합법적으로 받을 있도록 미혼모를 전담하는 법적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미혼모의 주 수입원은 정부 또는 기관지원이 가장 높았고, 미혼모가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가장 도움을 주는 도움지원은 시설이나 지원센터 등 기관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혼모가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지원은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을 가장 많이 받았고, 그 다음이 시설입소와 자녀 양육비지원, 생계비 또는 생활보조비 지원, 건강보험료 지원, 통신요금 지원, 전기 또는 가스요금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지원(상담 포함), 교육비 지원, 주거지원 또는 전세자금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미혼모는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을 주거 지원이라고 응답하였다. M. Lee(2012)가 발표한 양육미혼모의 생활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초생계수급비를 받는 비율이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수급자비율이나 수급비가 감소한다고 하였다. 또한 임신과 출산과정을 거치는 동안 경제활동이 축소되고 수입의 감소를 경험하는 미혼모는 자녀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시설이나 지

원센터 등 기관을 통해 지원받게 되고, 임신 후 미혼모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미혼모시설이 서울·경기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시설수도 미혼모자시설과 미혼모공동시설을 포함하여 59개소(Withmom, 2014)에 그쳐 미혼모들이 자녀와 함께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시설로서 생활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 미혼모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이 주거지원이었고,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지원 중에서 주거지원이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난 점은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함을 부각시켜 주고 있다.

셋째,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은 사회적 지지와 소외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통하여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경우, 타인을 신뢰할 수 있고,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J. Bowlby(1969)의 애착이론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W. Kang and A. Yoo(2000)는 소외감이 부나 모와의 정서적 친밀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고, H. Min(2008)은 소외감이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감과 같은 부모-자녀 관계에 보다 많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미혼모의 사회적 지지나 소외감은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본 연구결과는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직접적으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사회적 지지나 긍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쳐 자녀의 양육이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L. M. Tsou(2010)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사회적 지지는 소외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나타내었지만 자녀 양육효능감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한 개인의 심리적 적응 및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외로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선행연구(J. Kim & Y. Kim, 2009; M. Yoon, 1998)와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사회적 지원이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지원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다는 대체로 일관된 연구결과(C. E. Cutrona & B. R. Troutman, 1986; C. Johnston & E. J. Mash, 1989; D. M. Teti & D. M. Gelfand, 1991)를 본 연구는 뒷받침 해주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내의 지지는 자녀 양육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가족 이외 사람들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인 측면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C. B. Gee and J. E. Rhodes(2008)의 연구와 사회적 지지가 자녀 양육스트레스를 매개하여 자녀 양육효능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H. Choe(2002)의 연구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넷째, 사회적 지지는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매개

하여 미혼모의 소외감과 자녀 양육효능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는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매개하여 미혼모의 소외감을 낮추고, 낮아진 소외감이 자녀 양육효능감을 높이는 매개효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소외감은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매개하여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높으면 소외감이 낮아지고, 낮아진 소외감이 자녀 양육효능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미혼모의 사회적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중요한 원인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밝혀주었다. 이는 배우자를 가진 어머니의 배우자 지지와 긍정 정서가 자녀 양육효능감을 매개한다는 선행연구(P. Pederson et al., 2008; A. Rokach, 2005; M. Stewart et al., 2009)를 뒷받침해주는 결과이다. 또한 결혼이민자가 배우자 지지를 받아 자녀 양육스트레스를 줄여 자녀 양육효능감을 높인다는 연구결과(D. Kim & K. Lee, 2009)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미혼모의 자녀 양육효능감을 높여 자녀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자녀 양육에 초점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지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나 사회적 고립감을 상쇄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중요함을 시사해 준다.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높을수록 미혼모의 소외감을 낮게 지각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자녀관계가 긍정적일 때 외로움을 덜 느낀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H. Do, 1996; J. Kim, 2006). 또한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감은 청소년 자신의 소외감 지각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선행연구결과(H. Min, 2008)를 지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미혼모가 부모와 갖는 정서적 유대감은 소외감을 감소시켜 줄 수 있어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는 미혼모에게 부모와의 관계가 사회적 인식과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은 세대적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E. D. Bowen, 1979) 미혼모의 자녀가 영유아기에 부모와의 안정적인 관계형성을 맺을 수 있는 개입 방안에 미혼모가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이나 부모-자녀관계 향상 프로그램 참여가 포함되어야 함을 본 연구결과는 시사해 준다.

소외감은 자녀 양육효능감에 직접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이 대인관계에서 사회성 억제와 정적상관 관계가 있고(H. Kim et al., 2009), 우울한 어머니는 자녀 양육에 대한 효능감이 낮다는 선행연구(K. Kim, 2011; J. O'Neil, M. N. Wilson, D. S. Shaw, & T. J. Dishion, 2009)와 맥을 같이하였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관련된 주요 요인이 배우자의 지지(J. Belsky, 1984; F. Montigny & C. Lacharité, 2005; M. R. Sanders & M. L. Wool-

ley, 2005)가 직접적으로 자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보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나 불안 및 우울과 같은 정서를 매개한 간접적인 영향력이 크다고 밝혀 낸 선행연구(J. Bryanton, A. J. Gagnon, C. Johnston, & M. Hatem, 2008)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어머니의 자녀 양육효능감은 자신이 지각하고 있는 신념체계이므로 외부에서의 지지체계보다 자신의 정서와 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는 해석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나 각 지자체의 미혼모·부자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미혼모가 사회적으로 배제되거나 고립되었다고 느끼는 소외감을 감소시키고 개인 내적요인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심리 상담이나 원가족 부모와의 관계향상을 위한 가족상담 그리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미혼모의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시키고, 배우자가 부재인 미혼모의 사회적 지지자인 부모, 형제 및 가족의 지지를 인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혼모지원사업 또는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1차적으로 미혼모들을 위한 가족기능 강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미혼모 원가족 부모와의 관계향상은 물론, 미혼모 자녀와의 관계향상을 꾀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혼모 자신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자녀양육의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미혼모가 사회에 합류하여 자녀양육에 있어서 미혼모 스스로가 자녀를 잘 돌보고, 자녀의 행동에 잘 대처하고 달래며, 자녀의 정서적 신호를 바로 알아차려 자녀와 애정적 상호작용으로 자녀 양육효능감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를 가진 어머니의 자녀 양육효능감 연구를 바탕으로 설정한 이론적 모형을 통하여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과 사회적 지지 및 소외감이 미혼모의 자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미혼모의 자녀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관련성을 밝혀내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미혼모의 자녀 양육효능감에 관련된 변수들이 배우자를 가진 어머니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는 배우자의 지지를 받던 받지 않던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효능감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배우자를 가진 어머니에게 배우자 지지가 자녀 양육효능감을 설명해 준 것과 비교해 미혼모의 사회적 지지는 자녀 양육효능

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미혼모의 자녀양육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지지를 탐색할 필요성을 제기해 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을 선택하는 미혼모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전국의 시설거주 미혼모와 재가미혼모를 대상으로 양육효능감에 관련된 변인들의 관련성을 밝혀낸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미혼모의 부모와의 관계와 소외감을 다루어 줄 수 있는 교육이나 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소외감을 상쇄시킬 수 있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정책방안이 양육미혼모의 자녀양육에 시급히 요구된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특히 미혼모의 자녀양육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미혼모의 자녀양육을 기혼 어머니의 자녀양육과 비슷한 관점에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이 어려워 시설 미혼모와 재가 미혼모를 비교분석하지 않았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두 집단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탐색하여 실제 현장에서의 개입 방안을 탐색하거나 정책적으로 시설 미혼모를 위한 지원방안과 재가 미혼모를 위한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전국 미혼모·부자시설 중 미혼모시설 59개 시설 중 일부 시설의 양육 미혼모와 일부 재가 미혼모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점이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병원에서 미혼모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구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미혼모의 실태조차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양육 미혼모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과 개입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미혼모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를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 대상인 미혼모는 자녀를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하면서 한부모지원법에 의해 지원을 받게 된다. 한부모 가정은 미혼한부모와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한부모로 구분할 수 있으며, 미혼한부모와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한부모에게는 각각 개입방법이나 정책지원에도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미혼한부모와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한부모를 비교분석하여 이들에 대한 개입방법도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Ahn, J. J., & Kim, J. H. (2004). The effect of social relationship on unmarried mother's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6(3), 61-87.
- An, S. O. (2005). *Family system and adolescents' loneli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ungbuk, Korea.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and Company.
- Barnes, C. R., & Adamson-Macedo, E. N. (2007). Perceived maternal parenting self-efficacy (PMP S-E) tool: Development and validation with mothers of hospitalized preterm neonate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0(5), 550-560.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0.
- Berry, J. W., Poortinga, Y. H., Segall, M. H., & Dasen, P. R. (2002). *Cross-cultural psychology: Research and applications* (2nd e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wen, E. D. (1979). Imaginary audience behaviour in children and adults. *Developmental Psychology*, 15, 33-44.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ryanton, J., Gagnon, A. J., Hatem, M., & Johnson, C. (2008). Predictors of early parenting self-efficacy: Results of a prospective cohort study. *Nursing Research*, 57(4), 252-259.
- Bryanton, J., Gagnon, A. J., Johnston, C., & Hatem, M. (2008). Predictors of women's perceptions of the childbirth experience. *Journal of Obstetric, Gynecologic, & Neonatal Nursing*, 37(1), 24-34.
- Choe, H. S. (2002). *Effects of mother's perceived social support, stress, and child's temperament on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Claes, L., Vertommen, S., Smits, D., & Bijttebier, P. (2009). Emotional reactivity and self-regulation in relation to personality disorder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7(8), 948-953.
- Cochran, M., & Niego, S. (1995). Parenting and social networks.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 3: Status and social conditions of parenting* (pp. 3-418). Hillsdale, NJ, England: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Cohen, S., & Hoberman, H. M.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99-125.
- Coleman, P. K., & Karraker, K. H. (1998).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1), 47-85.
- Connolly, J., Heifetz, M., & Bohr, Y. (2012). Pregnancy and motherhood among adolescent girls in child protective services: A meta-synthesis of qualitative research. *Journal of Public Child Welfare*, 6(5), 614-635.
- Cutrona, C. E., & Troutman, B. R. (1986). Social support, infant temperament, and parenting self-efficacy: A mediational model of postpartum depression. *Child Development*, 57(6), 1507-1518.
- Do, H. S. (1996). The relationship of shyness, interpersonal adjustment, and peer acceptance to loneliness in children. *Th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7(2), 33-45.
- Drake, E. E., Humenick, S. S., Amankwaa, L., Younger, J., & Roux, G. (2007). Predictors of maternal responsiveness.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39(2), 119-125.
- Elek, S. M., Hudson, D. B., & Bouffard, C. (2003). Marital and parenting satisfaction and infant care self-efficacy during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The effect of infant sex. *Issues in Comprehensive Pediatric Nursing*, 26(1), 45-57.
- Gee, C. B., & Rhodes, J. E. (2008). A social support and social strain measure for minority adolescent mothers: A confirmatory factor analytic study.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34(1), 87-97.
- Heller, K., & Swindle, R. W. (1983). Social networks, perceived social support. In R. D. Felner, L. A. Jason, J. Moritsugu, & S. S. Farber (Eds.), *Preventive psycholog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in community intervention* (pp. 87-103). Pergamon Press.
- Jackson, A. P., & Scheines, R. (2005). Single mothers' self-efficacy, parenting in the home environment, and children's development in a two-wave study. *Social Work Research*, 29(1), 7-20.
- Jackson, A. P., Brooks, G. J., Huang, C., & Glassman,

- M. (2000). Single mothers in low wage jobs: Financial strain, parenting, and preschoolers' outcomes. *Child Development, 71*(5), 1409-1423.
- Johnston, C., & Mash, E. J. (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2), 167-175.
- Jones, T. L., & Prinz, R. J. (2005). Potential roles of parental self-efficacy in parent and child adjustment: A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5*(3), 341-363.
- Junttila, N., Vauras, M., & Laakkonen, E. (2007). The role of parenting self-efficacy in children's social and academic behavior.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22*(1), 41-61.
- Kang, W. S., & Yoo, A. J.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ived father's/mother's values, father/mother-student emotional intimacy & father's/mother's over-control and university student's alienation.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8*(8), 69-84.
- Kendall, S., & Bloomfield, L. (2005). Developing and validating a tool to measure parenting self-efficacy. *Journal of Advanced Nursing, 51*(2), 174-181.
- Kim, D. H., & Lee, K. E. (2009). The study on path analysis for parenting efficacy of married immigrant women at multi-culture family.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4*(2), 77-98.
- Kim, H. J.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social support and child's social develop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Incheon, Korea.
- Kim, H. Y., Sun, B. Y., Kim, E. Y., & Jung, J. H. (2009). Unwed mother's life world and policy agenda.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09*(10), 113-115.
- Kim, J. M. (2006). *Loneliness of adolescents according to affectionate relationship with parents and quality of peer relationship*.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Gyeonggi, Korea.
- Kim, J. U. (2007).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on adolescents' loneli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ungbuk, Korea.
- Kim, J. U., & Kim, Y. H. (2009).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on adolescents' loneliness.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0*(4), 2287-2301.
- Kim, K. E. (2011). Maternal depression, parental efficacy, and involvement in play and children's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e.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8*(4), 1-17.
-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09). *Policy issues and intervention strategies for unmarried mothers*.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0). *The 60th Women Policy Forum: Welfare services and intervention for unmarried women*.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Leahy-Warren, P., McCarthy, G., & Corcoran, P. (2011). Postnatal depression in first-time mothers: Prevalence and relationships between functional and structural social support at 6 and 12 weeks postpartum.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25*(3), 174-184.
- Lee, M. J. (2010). Intervention strategies of welfare service and support for unmarried women. *Sociological Conference for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2010*(12), 1291-1301.
- Lee, M. J. (2012). Policy issues for unmarried mother's child-rearing and self-supporting service.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1*, 1-22.
- Metzler, C. W., Biglan, A., Ary, D. V., & Li, F. (1998). The stability and validity of early adolescents' reports of parenting construct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2*(4), 600-619.
- Miller, B. C., McCoy, J. K., Olson, T. D., & Wallace, C. M. (1986). Parental discipline and control attempts in relation to adolescent sexual attitudes and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3), 503-512.
- Min, H. Y. (2008). The influence of income and emotional closeness with father/mother on middle and high school-adolescent's alienation.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7*(6), 1105-1114.
- Montigny, F., & Lacharité, C. (2005). Perceived parental efficacy: Concept analysi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49*(4), 387-396.
- Moon, J. S. (2013). *Effects of emotional connection with parents, social support, and isolation on unmarried mothers' child-rearing efficac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ungbuk, Korea.
- Moon, Y. K., & Min, H. S. (2012). The effects of infant's temperament, development, mother's parenting

-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infant mother's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1(1), 59-70.
- Ngai, F. W., Chan, S. W. C., & Holroyd, E. (2007). Translation and validation of a Chinese version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in Chinese mothers. *Nursing Research*, 56(5), 348-354.
- Niditch, L. A., & Varela, R. E. (2012). Perceptions of parenting, emotional self-efficacy, and anxiety in youth: Test of a mediational model. *In Child & Youth Care Forum*, 41(1), 21-35.
- O'Neil, J., Wilson, M. N., Shaw, D. S., & Dishion, T. J.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efficacy and depressive symptoms in a diverse sample of low income mother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8(6), 643-652.
- Park, J. W. (1985). *A study to development a scale of social suppor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Pederson, P. V., Christensen, A. I., Hesse, U., & Curtis, T. (2008). *Health survey of socially excluded people in Denmark 2007(SUSY UDSAT- Sundhedsprofil for socialt udsatte I Danmark 2007)*. Copenhagen, Denmark: The Council for Socially Marginalized People. *Pediatric Nursing*, 26, 45-57.
- Radey, M., & Brewster, K. (2013). Predictors of stability and change in private safety nets of unmarried mothers.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39(3), 397-415.
- Reece, S. M., & Harkless, G. (1998). Self-efficacy, stress, and parental adaptation: Applications to the care of childbearing families. *Journal of Family Nursing*, 4(2), 198-215.
- Rokach, A. (2005). Private lives in public places: Loneliness of the homel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72(1), 99-114.
- Russell, D., Peplau, L. A., & Cutrona, C. E. (1980).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3), 472-480.
- Salonen, J. T., Choi, A. L., Weihe, P., Budtz-Jorgensen, E., Jorgensen, P. J., Tuomainen, T. P., & Grandjean, P. (2009). Methylmercury exposure and adverse cardiovascular effects in faroese whaling men.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 117(3), 367-372.
- Sanders, M. R., & Woolley, M. L.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self-efficacy and parenting practices: Implications for parent training.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31(1), 65-73.
- Sevigny, P. R., & Loutzenhiser, L. (2009). Predictors of parenting self-efficacy in mothers and fathers of toddlers.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36(2), 179-189.
- Simons, R. L., Beaman, J., Conger, R. D., & Chao, W. (1993). Childhood experience, conceptions of parenting, and attitudes of spouse as determinants of parental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2), 385-398.
- Song, K. S. (2012). *Current situations of single mother and improvement plans for welfare polic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Gaya University, Gyeongnam, Korea.
- Song, M. H., Song, Y. S., & Kim, Y. J. (2007). The effects of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parenting self-efficacy in early childhood mothers. *The Journal of Korean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2(5), 165-183.
- Stewart, M., Reutter, L., Letourneau, N., & Makwarimba, E. (2009). A support intervention to promote health and coping among homeless youths. *Canadia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41(2), 54-77.
- Suzuki, S. (2010). The effects of marital support, social network support, and parenting stress on parenting: Self-efficacy among mothers of young children in Jap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Research*, 8(1), 40-66.
- Teti, D. M., & Gelfand, D. M.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in the first year: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5), 918-929.
- Tsou, L. M. (2010). *The relation of childhood memories and husband support to parenting self-efficacy in Japanese moth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Whittaker, K. A., & Cowley, S. (2012). A survey of parental self-efficacy experiences: Maximising potential through health visiting and universal parenting support.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1(21-22), 3276-3286.
- Withmom. (2014). August 20, 2014, Retrieved from

<http://withmom.mogef.go.kr/>

Woody, D., & Woody, D. J. (2007). The significance of social support on parenting among a group of single, low-income, african american mothers. *Journal of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15(2), 183-198.

Yoon, M. K. (1998). *A study on the children's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according to peer accepta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접수일 : 2014년 09월 15일
- 심사일 : 2014년 10월 17일
- 게재확정일 : 2014년 12월 16일